

“작은 동전으로 소외계층 학생에 희망주고파”

창립 23주년 맞은 '100원회' 김희만 회장

하루 100원 모아 22년째 장학금 전달 '기부천사'
생활·의료·난방비 등 사회 곳곳 도움 전달 '훈훈'

“하루에 100원 모으기, 작은 동전 하나가 지역 사회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줬으면 합니다.”

올해 창립 23주년을 맞은 '100원회'가 지난달 12일 소외계층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22년째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100원회'는 하루 100원씩 모으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만든 순수 민간 봉사단체다.

이 단체가 23년간 명맥을 이을 수 있는 데는 김희만(73) 100원회 회장의 애정과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기본 좋은 후문이다.

김씨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다”며 “지난 시간동안 100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감사과 고마움에 잡이 안 올 지경

이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 같은 100원회 창립 배경에는 김씨가 나눔과 봉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99년 김씨(당시 50세)가 서구청 6급 계장으로 근무할 무렵, 휴가 나온 아들에게 소고기 먹이기 위해 흠치다 구속된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것이다.

김씨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 엄마뿐만 아닌,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랬을 것이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무엇 이든 하고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그 때 김씨 눈에 띈 것이 100원짜리 동전이었다. “하루에 100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재 활용품을 하루 하나씩만 팔아 모은다면 도울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00원회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내성적인 내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속스러워하기도 했다.

같은해 4월에 결성된 100원회는 이듬해 5월21일 중·고등생·대학생 총 31명에게 350만원을 전

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2회째 장학금 전달식을 매년 꾸준히 진행했다.

'100원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은 장학금뿐만 아니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비·의료비·난방비·영정사진 촬영 등 사회 곳곳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씨는 23년간 100원회를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못 준 게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100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후원해주시는 회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100원회를 만든 것이 73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며 “5천만 국민 모두가 100원회 회원으로 가입해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남은 삶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과 100원회는 나눔 활동으로 2006년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대상을 비롯해 2015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2018년 국민추천 나눔·희망실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사원기자

김천홍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부임



김천홍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5일 부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부교육감의 부임식은 이날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장석용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학습결손과 학력격차를 회복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석용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을 넘어 지속가능 미래교육을 열어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김 부교육감님이 중앙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전남교육이 혁신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진 출신인 김천홍 부교육감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교육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실, 외교통상부 주 유네스코대표부 주재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목포대 사무국장을 마친 뒤 지난 2020년 10월에는 미국 조지아대 칼빈스 연구소에 파견돼 1년 동안 연구활동을 했다.

/임재만기자



효천다솜유치원 ‘환경사랑 나눔장터’ 행사

효천다솜유치원이 최근 이틀 동안 야외 전래 놀이터에서 유치원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사랑 효천다솜 나눔장터’를 개최했다.

5일 효천다솜유치원에 따르면 이번 나눔장터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활용해 폐기물을 줄이는 등 환경사랑을 위해 기획됐다.

먼저 가정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는 옷·장난감·책·학용품·생활용품·신발 등을 수집했다. 이후 유아들이 직접 가게를 꾸민고, 학부모들은 와플·미니붕어빵 등을 직접 만들며 행사에 참여했다.

효천다솜유치원 한 학부모는 “자기주도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나눔장

터가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며 “언니의 인형까지 사와서 언니가 감동받았다”고 학급원에 댓글을 남겼다.

도우미로 참여한 한 학부모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버려지지 않고 다른 필요한 분에게 다시 쓰이니 너무 뿌듯하고 보람됐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채미숙 효천다솜유치원장은 “아름다운 기부 문화인 나눔장터를 통해 남은 물품은 지역사회에 기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경험의 장을 자주 마련해 유아들이 환경사랑교육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영암 의용소방대 ‘전남 강의 경연대회’ 최우수상

영암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윤희호·김옥에 대원이 2021 전남도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소방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최근 장흥군 통합화력컨설팅센터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각 지역에서 선발된 정예 의용소방대 11개 팀(생활안전 분야 5개 팀, 심폐소생술 분야 6개 팀)이 참가해 강의 경연을 펼쳤다.

심폐소생술 분야에 출전한 윤희호·김옥에 대원은 ‘생명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출제해 막힘없

는 강의와 흥미를 유발하는 짜임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오는 11월 전남도 대표로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출전한다.

박학순 영암소방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이뤄 축하드린다”며 “이번에 습득한 심폐소생술 기술을 지역민에게 전파해 소방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명영기자

담양소방서, 축사 화재 예방 종합대책 강화

담양소방서는 5일 “최근 화재에 취약한 축사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을 위해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남도 내 축사 화재 158건 중 재산 피해 92억원 부상 4명이며 이 중 전기로 인한 화재가 80건(50.6%)으로 가장 많고 겨울철 51건(32.2%), 봄철 40건(25.3%) 순이다.

주요 내용은 ▲1일 1회 취약 시간대인 오후 1~4시 사이 축사 기동순찰 ▲인근 소방용수시설 위치 파악·점검 ▲불필요한 전선 차단·노후 콘센트 교체 등 화재 안전 컨설팅이다.

박상대 담양소방서장은 “축사시설은 대부분 연소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과 건물 구조로 화재



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축사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지스트, 예비창업패키지 맞춤형 심화교육 성료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최근 광주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맞춤형 심화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스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중심으로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스트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는 인공지능(AI) 분야이며, 선정된 총 37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 이어 지난 1일 맞춤형 심화교육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다.

맞춤형 심화교육은 ▲마케팅&브랜딩(설득 커뮤니케이션, TPCM Model) ▲백엔드측하는 IR교육(피쳐셋 구성 및 제작, 투자자를 설득시키는 IR과정) ▲투자유치 및 VC투자의 이해(실제 사례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 VC심사역이 바라보는 투자관점,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에 대해 강의형과 멘토링형으로 나눠 진행했다.

/임재만기자

목포 상동파출소, 자동 발열 체크 시스템 설치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자동 발열 체크 시스템을 설치,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상동파출소에 따르면 그동안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경찰관, 방문 민원인들의 발열 여부를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접 대면해 체온을 측정했다. 이번엔 설치한 ‘자동 발열 체크 시스템’은 기존 대면 측정 방식에서 벗어나 청사 출입문 앞에 전자식 체온계를 설치해 자동으로 체온 측정과 확인까지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스마트한 방역 활동 전개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청사를 방문,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김윤수 상동파출소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동 관내 치안을 위해 전 직원이 생활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대민 접촉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호남대 (주)엘앤에이치랩스 ‘프리팁스’ 선정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교수창업기업으로 시니어대상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엘앤에이치랩스(L&H Labs)가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프리팁스(Pre-TIPS)’에 선정됐다.

프리팁스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팁스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엔젤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엘앤에이치랩스는 호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학과장 이동우) 이현민 교수가 창업한 교수창업기업으로 2020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비창업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돼 비대면 기반 의료적응서비스인 하루핏 서비스(HARUFIT SERVICE)를 개발했다.

하루핏 서비스는 코로나 이후 기존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착안해 개발된 시니어대상 맞춤형 건강서비스다. 하루핏 서비스는 운동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체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체계적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현민 엘앤에이치랩스 대표는 “하루핏 서비스는 의료기기가 아닌 시니어대상 헬스케어 서비스로 지난 9월 광주광역시창업지원센터에서 제품실증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앤에이치랩스는 2021년 2월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특허법인 지원과 (주)GTTB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시드 투자를 담당한 특허법인 지원의 한상민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 영향으로 시니어대상 비대면 건강서비스 시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엘앤에이치랩스는 노인건강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다년간의 헬스케어 분야 R&D 개발 경험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투자 배경을 밝혔다.

/임재만기자

결혼

●박문철·김정희씨 장남 희환군, 김순경·이명희씨 장녀 인아양=10일(일) 낮 12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이파이어볼룸, 서울시 중구 을지로(소공동) 30, 010-3572-6806.

●김중만(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김옥주씨 아들 한철군, 이용기·홍영란씨 딸 해숙양=9일(토) 낮 12시 부산수영구 관안해변로 호텔 아쿠아펠리스 3층.

●최중국·정순영(전 광주 북구의원)씨 아들 영철군, 이한선·임정희씨 딸 지혜양=10일(일) 오후 1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김중만(광주일보 문화사업부장)·민경희씨 아들 민군, 문선주(광주시산림조합 전 비서)·김찬심씨 딸 은하양=16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 죽곡대로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홀.